

골프를 더욱 즐겁게 하는 세가지 즐거움들



이기윤
(현)위드스트리 대표

골프 후 목욕을 하고 레스토랑에 모인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온 몸의 피로가 녹아 사라진다. 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날의 골프 스트레스도 매직처럼 함께 사라진다.

그 많은 스윙 중 기억에 남은 것은 기막히게 잘 맞은 1~2개 뿐이다. 마치 장편소설 한 권을 다 읽고 났을 때 1~2줄의 펜찰은 문장만 뇌리에 남는 것과 같다. 맥주의 시원함 때문일까?

시음장을 겸하는 춘천CC 같은 곳에서는 생맥주와 맥주잔을 공히 5°C로 보관한다. 잔에 맥주를 따라 테이블에 갖고 가면 대략 7°C가 된다. 생맥주의 가장 황홀한 맛이 연출되는 온도가 되어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사라지는 것이다.

춘천CC 뿐이 아니라 최고의 프라이빗 클럽을 자처하는 골프장은 하나같이 - 고객이 스트레스를 갖고 가지 않도록 - 매직같은 신선한 생맥주 제공에 신경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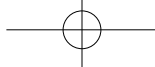
삶의 즐거움이 넘실거리는 시간 - 골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레스토랑만큼 쾌적한 곳은 없다. 적당한 시장기가 있어 맛도 두 배로 훌륭해 진다. 가격이 고급 호텔수준이어서 다소 부담스럽지만 더치페이가 불문율로 지켜지는 공간이니 감수할 만하다. 성공한 노인들의 천국인 한양CC 안양베네스트 같은 곳에서는 골프를 극찬하는 발언도 심심찮게 들린다.

“난 죽지 않을 거야. 이 즐거운 골프를 두고 어떻게 죽어”

“이 사람아, 죽는 거야 피할 수 없지. 다만 죽기 하루 전까지 골프를 하려면 죽기로 건강을 스스로 돌봐야지...”

한편에선 조크도 나온다. “걱정들 마. 천당에 가도 골프장이 있다니까. 반취 선생에 의하면 창세기 때 하느님도 골프를 했는지 않나. 하느님이 골프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골프 규칙은 원칙적으로 인간은 정직하고 선하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거래.”

“천당에 가면 다행이지. 지옥에 갈 거 같으니까 그러지.” “ㅎㅎㅎㅎ. 지옥에도 골프장이 있대. 인간을 지옥에 끌어들이기 위해 - 혹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 사탄이 연구와 실험을 거듭되는 곳이니까. 인간을 오기 덩어리로 만들면서 거짓말, 속이기를 가르쳐 하늘이 용서 못하게 만들고, 인간은 인간대로 갇혀있고 하느님을 마구 원망하게 만들고... 지옥에 있는 골프장이 천당 거



보다 더 좋대요. 클럽도 고급스러운 게 가득하고.
다만 지옥다워야 하니까 한 가지가 없대.”

“뭐가?”

“공이 없대.”

우하하하하하하. 모두가 한바탕 웃는다. 마치 죽어서 천상에 올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속상해 하며, 죽도록 미워했던 삶을 내려다보며 깔깔깔 웃게 된다는 것처럼.

한번은 골프의 즐거움을 세 가지씩 말해보자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사람은 무엇이든 백인백색이다. DNA도, 지문도, 홍채도, 골프 스윙도 모두 백인백색이다. 각자가 느끼는 ‘골프 3락’은 어떠할까. 과연 다양한 노래가 나왔다.

고지식한 G씨부터 말했다. “내가 느끼는 골프의 3락은 ▲첫째, 부킹 후 골프장에 가는 날까지 기다리는 즐거움 ▲둘째, 라운딩 하는 즐거움 ▲셋째, 뒤풀이의 즐거움...” 박수가 나왔다.

이어 장난기 많은 O씨가 말한다. “나는 ▲1락, 골프 잘 치고 사우나 따뜻한 탕에서 창 밖을 보는데 비가 억수로 내릴 때 ▲2락, 사우나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 때 ▲3락, 잘 놓고 돌아가는데 길이 안 막힐 때...” 듣는 일행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내기 골프에서 재미를 찾는 L씨가 바통을 받는다. “나의 3락은 말야... ▲오늘도 13번 홀에서 그랬지? 배판에서 세 명 모두 OB 내고 나만 페어웨이 안착했잖아. 그런 때 얼굴 돌리고 킬킬 웃는 즐거움이 첫째고(히히히) ▲둘째는 해저드나 OB쪽으로 휘어져 날아간 상대의 볼이 나무나 돌 맞고 더 멀리 확실하게 날아가는 경우랄까. ▲셋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갑을 보는데, 딴 돈이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인걸 알게 되는 순간의 즐거움 같은 거...” 연신 히히거리면서 말한다. 저는 그게 그렇

게 좋을지 몰라도 반응은 썰렁하다.

친구 따라 강남가는 F씨가 3락의 정의를 원점으로 돌린다. ▲아무래도 맘에 맞는 동반자와 라운드 하는 즐거움이 첫째 같아 ▲라운드 후 동반자와 쾌적한 욕탕에서 목욕하는 즐거움 ▲그리고 뒤풀이로 맛있는 안주 놓고 술잔 나누는 즐거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골프에서의 즐거움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코어가 어떻든, 내기에서 지든 이기든, 내 나름대로 골프를 즐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하지만 골프 삼매(三昧)의 세계를 아는 사람의 3락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티샷이 페어웨이를 반으로 썬 때의 즐거움 ▲아이언 샷이 그린의 깃대를 향해 날아가서 바로 멈춰 설 때의 즐거움 ▲롱 퍼팅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홀 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즐거움 같은 게 아닐까?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 법. 정말 음식도 술도 맛있고, 잘 받는 클럽 레스토랑에서의 시간이다. 골프가 축복인 것은 건강해야 할 수 있고,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신이 있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는가. ‘음주운전(?)’이라는 네 글자가 경계로 떠오르는 순간 맥주 빛은 시커멓게 변하고, ‘트래픽’을 뚫고 집에 갈 일을 생각하면 진수성찬이, 일을 끝냈는데도 조금만 더... 하고 붙잡는 여자 같아진다.

평소 오너드라이버에 전혀 불만이 없던 사람도, 이 때 만큼은 ‘기사가 있었으면...’하는 간절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